

데스크 시각



채희중
사회부장 겸 편집부국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여행의 1번지로 꼽는 도시는 단연 '파리'일 것이다. 그곳에 도착하면 맨 먼저 에펠탑이 눈에 띈다. 파리를 관광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만나게 되는 탑이다.

몇 해 전 대학생들과 함께 파리 문화여행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첫 방문지가 에펠탑이었다. 그곳에서 가이드로부터 파리 시민들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에펠탑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파리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라는 이유로 파리지앵들이 에펠탑 건립에 반대했다는 설명은 누구나 한번쯤 들었을 터이다. 지금은 수많은 여행 안내서에도 나와 있는 상식이다.

술한 예술가들이 비난했던 에펠탑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하기 위해 '구스타브 에펠'이 설계한 철 구조물이다. 1887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콘크리트 기초 작업에만 5개월이 걸렸고, 이후 기초 위에 네 개의 기둥이 조립됐다. 석조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파리에, 그것도 도시 한 중앙에 거대한 철탑이 세워지자 소설가 모파상 등을 비롯해 예술가들은 '예술의 도시 파리를 망치는 흉물'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에펠탑은 25개월 만에 302m의 위용으로 탄생하게 된다.

건축 과정에서는 온갖 비난과 불평불만의 대상이였

탄압하면 뜯다는데

지만, 정작 1889년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자 600만 명이 관람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에펠탑 논쟁은 계속됐다. 급기야 건립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25년에는 "이제 만국박람회 등의 국제 이벤트가 없으니 철거하자"는 움직임마저 일어났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 에펠탑은 1959년 텔레비전 송전탑과 안테나가 더해져 320m로 더 높게 증축됐다. 현재 태어난 지 130년이 된 에펠탑은 파리 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유산이 됐다.

가장 많이 그려진 모델, 가장 많이 사진으로 찍힌 피사체, 가장 많이 찾는 건축물, 가장 많은 기념품으로 복제된 구조물. 이는 모두 에펠탑을 수식하는 말이다. 탄생 시점부터 기존 문화예술계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에펠탑은 만국박람회 직후 곧바로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군대가 군사통신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겨우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후 무려 40년 가까이 '흉물'과 '철거' 논쟁에 시달렸다. 수십 년간의 탄압이 에펠탑의 성공과 명성에 한몫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자주 마시는 술은 소주와 맥주지만, 그밖에 젊은이들이 즐기는 술을 꼽으려면 보드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전통주인 보드카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만든 술로, 러시아인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되 서민들의 술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보드카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분고장인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다. 보드카는 이미 위스키 이상으로 세계인이 즐기는 술로 자리잡았다.

보드카가 세계인의 술이 된 것은 러시아인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탄압 때문이었다. 러시아 황제 리올라이 2세는 보드카의 알코올 도수가 높으며 도수를 제한했다. 블세비키 정권은 '인민들의 정신을 타락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 기풍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금주령을 내렸다. 이렇게 보드카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자 러시아인들은 세계 각지로 망명했다. 망명한 사람들 중에는 주조 기술자들도 섞여 있었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드카를 만들었다. 점차 다른 나라에도 퍼져 이제는 미국·스웨덴·핀란드에서 만든 보드카가 러시아 제품보다 더 유명할 정도가 됐다.

단순 거품인가 이유 있는 상승인가

문화나 예술은 물론 사람도 반대편의 탄압과 공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된다. 시헛말로 '때리면 뜨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집중적인 압박과 견제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들어 실시한 열 번의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두 번이나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현직 최고위 공직자가 집권당의 대선 주자를 앞서 지지율 1위를 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 없던 이변이다. 호사 가들의 말처럼 탄압에 의한 단순 반작용인 것일까?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뭔가 허전한 분석이다. 아무리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나 뜯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떠도 너무 뜯'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워지자마자 철거 위기를 맞았던 에펠탑은 완벽한 구조미와 곡선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금주령으로 뒤서리를 맞았던 보드카는 술한 전쟁과 혁명으로 점철된 숨막히는 러시아 역사 속에서 국민을 위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윤석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의 인기가 '때리면 커진다'는 정치공학적인 원리에 의한 한때의 거품으로 끝날지, 아니면 집권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진다.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56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료로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두르는 편에서는 왜 더 빨리 접종을 하지 않느냐고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코로나 백신 접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체 안으로 투약이 되거나 주사가 되는 의약품들은 매우 오랜 시간을 거쳐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이 된 다음 시판이 허가가 된다.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착용하는 KF94 마스크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있다. 마스크가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비말을 차단해야 하므로, 진정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유해 성분이 없는지 한 달간의 시험을 통과하고 45일을 더 검토한 후 허가가 나오게 된다. 그런 다음 의약품이라는 용도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게 된다. 마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크라도 이러는데 인체에 투입되는 의약품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겠는가?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보통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동물에 대한 시험을 거친 후 인체에 적용하기까지 다양한 집단과 변수들을 확인하면서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보통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어떤 제품은 긴 시간 동안 검증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판이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부작용이 발견되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시험을 해도 시험 대상 인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시판이 되면 해당 의약품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라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러한 사례를 들여보자면, 2015년 영국에서 개발된 A당뇨약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 사건이 있었다. 2006년경 시판되어 수년간 혈당 강하 효과가 좋으면서도 저혈당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서 기존의 당뇨약에 비해 처방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국내에서 한 해 약 460억 원어치가 처방된 인기 제품이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여러 논란 속에서 결국 퇴출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약품이 있었다. 1953년에 개발되어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 임산부들에게 입덧을 예방하거나 수면제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팔다리가 형성되지 않거나 기형으로 태

어난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다. 역학 조사 결과 탈리도마이드라는 약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밝혀졌다. 당시 탈리도마이드는 부작용이 없는 기적의 약품으로 광고되었지만 결론은 이처럼 참담한 후유증을 일으킨 뒤에야 퇴출되었다.

미국과 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한 간호사가 정신을 잃은 사건도 발생했다. 우리가 말하는 체질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렇지도 않은데 특정인에게는 심각한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조기에 접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을 하지 않고 미국과 영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 누구도 생명을 대해 책임질 수 없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도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급한 마음에 무조건 접종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최근 보고되는 백신의 항체 생성률이 약 75%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할 것이다. 백신 접종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한기민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개혁 과제인 경찰 개혁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밝힌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는 판사·검사·변호사나 경찰 재직 5년 이상자 등 일급 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은 시도의회 두 명, 국가경찰위·교육감·시도지사 각 한 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 두 명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 3년의 단임제다.

또 자치경찰의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관할 지역 내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대와 여성·청소년 업무 및 교통 등 순수 자치사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심의·결의를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우선 준비된 시도부터 실시하

‘정인이 사건’의 교훈

되,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실시해야만 한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는 자치경찰제라는 커다란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제도 실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되리라고 본다. 정부도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필자가 대학원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자치경찰'이라는 연구 논문에서도 다뤘었지만, 지역 사회의 경찰 활동 구성 요소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예방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순찰 활동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 증가 △의사 결정에 광범위한 주민 참여와 분권화 등이다.

이는 경찰 활동이 많은 분야에서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전체 범죄 수사 단서의 57.8%, 현행법의 68.7%가 주민의 제보에 의해 얻어지고 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범죄 해결에서 주민과 지역 사회의 협력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정착이 되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경찰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비난의 대상이 됐던 '정인이 사건'의 경우처럼 주민 신고를 임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우는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기대 효과는 이밖에도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 △국가 전체적인 치안 역량 강화와 질서 유지의 충실화 △주민과 화합하는 친근한 자치경찰상 정립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의 관련자들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단점을 여실히 간파할 수 있었다. 우선 업무 중복 사례가 허다하고, 업무 한계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사건 신고 접수 시 출동한 직원 간의 떠넘기식 업무 처리가 빈번해 신고한 국민들에게 경찰 업무의 비효율적인 단면을 자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지방 정치인의 경찰 행정에 대한 개입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시도의원 및 정치권 인사들의 경찰 활동 개입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으로 부정적인 면이 노출될 우려가 다분하다.

그러면서도 자치경찰제 시행을 환영하는 것은 자치경찰 활동이 지역 사회의 주민과 경찰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양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한다면 '정인이 사건'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서 지적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보완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찰상을 확립하고 선진국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GGM 지역 상생 외면해서야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여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200억 원대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가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한 데다 지역 생산 자재 사용조차 외면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오는 9월부터 연간 10만 대의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초 광주·전남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지붕 위 4만 8540㎡ 면적에 3.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 제안 공고를 냈다. 한데 사업 참가 자격을 단일 시공 실적 '10MW 이상'으로 제시해 업체의 반발을 샀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지역에 단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GGM은 시공 실적을 5MW 이상으로 낮춰 재공고를 냈지만 업체에선 사실상 보이콧하는 분위기다. 광주 지역에서 5MW 실적이 있는 업체가 두세 곳에 불과

한 데다 나머지 평가 항목도 특정 업체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도. 광주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업체 관계자들이 현장 설명회에서 값싼 중국산 패널 대신 지역 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증을 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GGM은 그동안 자동차 공장 신축이나 구내식당 일괄 공고 과정에서 대형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 지역 업체의 참여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광주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까지 거부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GGM은 노사민정의 대타협으로 탄생했고 500억 원에 가까운 시 예산이 투입된 '시민이 주인'인 회사이다. 따라서 경영진은 단순한 이익 추구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상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공적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공고함이 마땅하다.

경찰, 이래서야 어디 믿고 맡길 수 있겠나

있그제 금은방 절도 사건의 범인이 경찰 간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도대체 현직 경찰이 무엇 때문에 절도범이 됐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도박 때문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구속기간(10일)이남았음에도 특수절도와 자동차관리법 협의만 적용해 A경위를 서둘러 검찰에 넘겼다. 경찰 안팎에서는 현직 경찰관의 금은방 절도가 불법 도박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 동료 경찰의 범죄 혐의를 덮어 주면서 숨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태 들어 국가수사본부도 공식 출범했다. 이제 경찰의 위상이 과거와는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공룡 경찰'의 폐해를 우려하기도 한다. 경찰은 과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는가.

無等鼓

인간에게 유용한 소는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도 인류에게 큰 기여를 했다. 이는 백신(Vaccination)이라는 말이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버카(Vacca)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치사율이 30%에 달했던 천연두의 공포에서 인류를 구한 것도 소였다. 18세기 터키 의사가 인두법(人痘法)을 내놓았지만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인두법은 건강한 사람의 팔에 상처를 내고 천연두 농포에서 얻은 물질을 절개한

부위에 넣는 방식이었는데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백신과 소

1796년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서 천연두 백신을 찾아냈다. 당시에는 소젖을 짜는 사람들의 손에 우두(Cowpox)가 생기곤 했는데 이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제너는 '제임스 핏스'라는 소년에게 우두균을 접종해 앓게 한 다음 천연두 균을 접종했다. 예상대로 천연두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의 피 속에 동물의 균을 넣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제너는 때마침 유럽 전역에서 유행한 천연두를 우두 접종으로 퇴치하면서 구세주

파스트르연구소에서 만난 이들은 독성을 없앤 결핵균을 몸속에 주입하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 결핵균이 사람 결핵균에도 효과가 있다는 '교차 면역'을 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소 결핵균의 독성을 없애는 배양에 들어가 13년 만인 1921년 BCG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소가 없었다더라면 인류는 전염병 위기에 서 벗어나지 못할 뻔했다. 마침 올해는 '신축년' 흰 소의 해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없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